

## 회 의 록

회의명		2024년도 제3차 대학평의원회				
일 시		2024. 3. 18.(월) 11:00 ~ 12:00				
장 소		대학본부 별관 1층 CNU Hall				
안전		- [제3호] 2024년 「글로벌대학30」 예비지정 신청서(혁신기획서)				
회의결과		- 보고 안전				
참석 현 황	참석 대상자	22명	참석 내역	참석자: 16명 강석구, 최인호, 서연주, 이왕록, 이병채, 김운용, 김 담, 조성범, 김태섭, 김지수, 윤난희, 이재훈, 이찬술, 이한길, 윤다녕, 송채린	불참 내역	불참자: 6명 노수림, 홍장희, 최호정, 노현주, 김필형, 전득수
	참석자	16명				
	불참자	6명				
주요 발언내용						
<div>■ (개회 선언 및 성원 보고) 재적위원 22명 중 16명 참석.</div> <div>■ (전차회의록 검토 및 확인) 2024년 제2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결과, 수정 없이 원안으로 확정.</div> <div>■ 의안 제3호</div> <div>○ 의장(○○○): 제3호 안전 2024년 「글로벌대학30」 예비지정 신청서를 기획처의 요청에 따라 심의가 아닌 보고안전으로 진행하겠습니다.</div> <div>○ 기획처장(○○○): 회의 자료에 따라, 제3호 안전 보고 설명.</div> <div>○ 의원(○○○): 학무회의는 심의 사항이었는데, 왜 대학평의원회에서는 보고 사항 인지?</div> <div>○ 기획처장(○○○): 학무회의에서는 심의받았고 의결까지는 가지 않았음.</div> <div>○ 의원(○○○): 대학평의원회 일정을 기획처에서 일방적으로 잡는 것이 아닌지? 통합 지원 예산도 연 200억, 총 1,500억원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1년 차에 50억, 2년 차에 100억임. 교육부에서 국회 승인을 받아야 추가 예산 지원이 가능함</div> <div>○ 기획처장(○○○): 교육부 공고문에 통합대학의 경우 평균 1,500억원 예산을 지원한다고 명시. 대학의 규모에 따라 지원 예산이 달라짐. 우리</div>						

대학과 한밭대와의 규모를 고려해서 2,000억원 신청한 상태임. 글로컬 설명회 때도 연 200억 균등 지원이 아니라, 첫 해 50억 지원, 다음 해부터는 계획의 추진 상황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안내했음.

- 의원(○○○): 어쨌든 계획서에 1,500억원이라고 되어있고, 충남대 전임교원 930명, 한밭대 전임교원 대략 300명 정도로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없음.
- 기획처장(○○○): 글로컬 선정 대학 중 통합 규모가 가장 큰 충북대와 교통대가 2,000억원을 신청하였는데, 1,500억원 이상으로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함.
- 의원(○○○): 4page 왼쪽 하단에 '응용공학 중심 교육(특화 캠퍼스)'은 공대가 한밭대로 이동하는 것은 아닌지?
- 기획처장(○○○): 공대가 가는 개념은 아니고, 기존에 한밭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지속적으로 특성화하겠다는 내용임. 한밭대에는 우리 대학의 공대가 갈 수 있는 공간적 여유가 없음
- 의원(○○○): 통합했을 경우, 캠퍼스가 이원화되면 교수, 학생들이 어려운 상황이 많아질 것임.
- 기획처장(○○○): 양교 모두 신규 건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각 대학 모두 이원화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음. 평균 350억 규모로 건축 예산을 따고 있는데 남부운동장 옆 신규 건물은 8층 높이로 설계가 이루어지는 중임.
- 의원(○○○): 건물뿐만 아니라 그 안에 집기 구매, 이사 등의 수반 비용도 고려해야 함.
- 기획처장(○○○): 공간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 소요되는 공공요금 등에 제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의 내용인 듯함. 학교가 과밀한 상황이라, 본부 입장에서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흩어져 있는 조직들을 모으기 위해 건축 예산을 확보하고자 함.
- 의원(○○○): 세부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겠음. 계획서상으로 보면 전공자율 선택제를 25%이상에서 점진적으로 40%이상 도입할 것이라는 의미인데, 전북대는 100% 무학과제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27.5%라고 함.
- 기획처장(○○○): 구성원들에게 공지했듯이, 무학과제 30%라는 것은 학과 정원의 70%는 보장해 준다는 뜻임. 10%는 완전 무학과, 20%는 계열별 무학과임. 전북대 같은 경우는 농대에서 추진하는 100% 무학과 개념인데, 단대 안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모든 단과대학이 무학과를

진행함.

- 의원(○○○): 무학과 대상 학생정원 비율은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함.
- 의원(○○○): 학과의 화학적 결합이라는 것은 학과를 완전히 합친다는 뜻임. 무학과 대상 학생정원 비율은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함. 계획서를 보면 공대가 한발대로 넘어갈 것 같은데, 실험장비 등 필요한 이사 비용 예산 지원이 되는지? 글로컬 계획서는 작성을 하면 실행을 해야 하는데, 화학적 결합이라는 말을 수정할 수 없는지?
- 기획처장(○○○): 한발대라도 공대 전면 재배치는 없을 것이라는 확답을 받았음.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있다는 전제하에 여력이 있는 학과는 이동을 고려해 볼 수는 있음. 강원대와 강릉원주대를 모델로 캠퍼스 총장을 넣음. 이 캠퍼스 총장은 한발대 캠퍼스 특성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부총장의 이름임. 2027년도에 유사 학과 간 통폐합은 없을 것임. 교육부에서 통폐합 관련 규정이 내려왔는데 이전에는 유사학과는 의무적으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올해는 통합을 완화되게 진행할 수 있는 연합이라는 내용이 추가됨.
- 의원(○○○): 예비지정이 선정되면, 본지정 계획서를 바탕으로 통합실행계획서를 작성 후 교육부에 승인을 받아야 함. 그 안에 캠퍼스 재배치와 통폐합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있음. 그 부분을 통폐합 관련 심의 위원회에서 평가함. 비용을 미래로 떠넘기는 것임.
- 기획처장(○○○): 2024년도에 글로컬이 선정되면, 2025년까지 통합 설립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음. 그 후에 설립계획서 검토를 거쳐 2026년도에 통합 인가 신청을 하게 됨. 인가 후 2027년도에 통합대학을 출범 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예산은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확보할 수 있어서, 글로컬 사업 선정 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음. 글로컬이 떨어지면 1년 사이에는 통합을 추진할 이유가 없고, 새로운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추진 할 수 있음.
- 의장(○○○): 예산 문제는 차기 집행부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이지만 대학평의원회 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학무회의에서는 심의 안전이 되고, 여기에서는 보고 안전이 되어야 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 하고, 대학평의원회 규정에 “총장 또는 의장이 대학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있음. 심의사항은 곧 의결 사항으로 어떠한 부분이 의결사항이고, 보고사항인지 추가 논의가 필요함.
- 의원(○○○): 대학평의원회가 형식적인 기구에만 머물러 있음. 학무회의는

한달에 두 번 정기 회의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 추가 회의가 이루어짐. 대학평의원회는 안건 있을 때만 회의를 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기구에 머물러 있음. 향후 대학평의원회 운영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 의원(○○○): 공주대학교와의 1도1대학 추진은 어떻게 논의가 되는 것인지?
- 기획처장(○○○): 이 자료에서 크게 2가지가 추가될 예정임. 첫 번째는 5조 투자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1도1대학 부분임. 공주대에서 2027년부터 1도1대학 계획을 넣자고 제안함. 공주대, 공주교대, 충남대학교는 연합체계임.
- 의원(○○○): 연합대학은 사립대를 위한 체계로 이해하고 있는데, 공주대와의 연합이 가능한 것인지?
- 기획처장(○○○): 연합은 통합하기 힘든 대학을 위해서 나온 개념임. 예를 들어 사립대처럼 재단이 합쳐지기 힘든 경우, 국립대라도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서 통합의 시너지를 가져가기 힘든 경우에는 연합을 가져갈 수 있음. 강원대 통합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 캠퍼스를 이원화해서 캠퍼스 총장을 두는 형태의 연합을 함. 우리 대학과 공주대와의 통합을 논의할 때도 물리적인 거리를 감안해서 연합의 형태를 고려 중임. 연합을 추진하는 경우 글로벌 예산이 1,000억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밭대와의 경우는 연합 보다는 통합을 통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것이고, 구성원의 우려를 반영해서 연합에서 사용하고 있는 캠퍼스 총장의 이름도 부가적으로 넣었음.
- 의원(○○○): 연합의 경우, 예산이 이원화되는 것인지?
- 기획처장(○○○): 연합의 모델은 최소한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거버넌스는 통합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음. 행정적으로 통합되기 때문에 예산도 통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의원(○○○): 목원대와 배재대의 경우, 연합대학을 추진하는데, 우리 대학에서 구성원 동의 절차 얻는 과정에서 통합이 무산되면 연합으로 다시 추진할 생각이 있는지?
- 기획처장(○○○): 다음 집행부에서 판단할 사항. 내년에는 국립대 글로벌이 없다는 얘기가 있고, 육성사업 예산이 40% 삭감될 수 있다는 내용이 지난주 국공립대 총장 협의회에서 나왔음.
- 의원(○○○): 예비지정 선정 후, 학생과 본부 간에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함. 학생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비율이 대학

평의원회 비율을 준수하는데 학생 의원 비율의 확대를 요청함.

- 기획처장(○○○): 구성원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과 설명회를 통해 구성원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인수인계서 작성 중임.
- 의원(○○○): 핵심 쟁점을 가지고 대토론회가 필요함.
- 의원(○○○): 첫 번째 페이지 QS대학평가 10개라고 되어있는데, 총괄되는 부분은 5개로 되어있음. 비율이나 숫자가 통일됐는지 체크해야 함. 학사운영 부분에 수업연합 폐지가 좋은 사례가 있어서 추가한 것인지? 글로벌 실무추진단에 구성원 추천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대학평의원회처럼 교원, 직원, 조교 학생 각 구성원들이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되는지? 충청연합대학이라는 표현에서 충남이 아닌 충청으로 표현한 이유? 1도1대학에서는 1도가 충청도를 말하는 것인지? 충청남도를 말하는 것인지?
- 기획처장(○○○): 정확한 표현으로는 충청연합대학이 아니고 대전세종충남연합대학임. 수업연합에 관련된 것은 학생이 빨리 졸업할 수 있는 체계와 복수전공 활성화 측면에서 수업연합을 유연하게 운영한다는 취지로 수업연합 폐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설명을 추가해서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하겠음.
- 의원(○○○): 소수학과에 대한 지원책이 있는지? 대학원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있는지?
- 기획처장(○○○): 대학원생 지원 부분은 정출연과 융합해서 글로벌탐타어 연구를 지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대학원생 위주의 프로그램을 만들게 될 것임. 소수학과를 위해 15명이하의 학과는 정원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무학과제도를 운영할 계획인데, 현재 학과의 커리큘럼 조정으로 복수전공, 융합전공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학과 차원에서 독려 중임.

■ 폐회